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9월 10일(주일) 제1458호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사랑!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나눔 10월 8일까지 순별, 개인별 현금 및 공동체별 대상자 선정

2023 사르밧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뜻깊은 행사다. 온누리교회 협력 농어촌교회에서 수확한 쌀을 어려움을 겪는 성도, 교회 밖 이웃에게 전달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개인은 10월 8일(주일)까지 쌀 20kg 한 포대 가격(65,000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현금을 봉헌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이다. 다른 캠퍼스 송금 계좌는 상단 QR 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는 1순위 온누리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눔 대상자가 선정되면

10월 8일(주일)까지 공동체 이름으로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3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수확한 쌀은 10월 30일(월)부터 공동체에서 추천받은 대상자들에게 현지에서 직접 택배로 배송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에서는 상황에 맞춰 대상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9월 29일~10월 1일
파주 영산수련원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하베스트)'가 막 오른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진행된다. '하베스트'는 이주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연합예배다.

2023 하베스트에서는 9월 29일 김성환 목사 '길', 30일 김태진 목사 '진리', 10월 1일 노규석 목사 '생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나라별 장기자랑, 나라별 모임, 조셉 붓소 형제의 특별 공연 및 간증, 미니올림픽, 성찬식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베스트'를 위한 물품 후원을 받는다. 필요한 물품은 추석 선물세트, 텀블러, 간식 등이다. 후원을 원하는 성도들은 9월 23일(토)까지 온누리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로 물품을 보내면 된다. 문의: 010-9418-1910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하반기 개강

9월 12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하반기 개강을 한다. 9월 12일(화)부터 12월 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체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김성목 장로가 '통(通)하는 부부, 통(痛)하는 부부'를 주제로 강의한다. 10월 23일에는 JCC아트센터에서 온라인커뮤니티 맞춤형도전회가 열린다. 11월에는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215-3214

성찬 포도즙 담근다!

양재 9월 12일,
서빙고 9월 18~19일

성찬 포도즙을 담근다. 서빙고온누리교회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교회 식당(지하 1층), 양재온누리교회 9월 12일 교회 식당(지하 2층)에서 성찬 포도즙을 담근다. 이 기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성찬 포도즙 제조에는 서빙고 임직대상자 70여 명, 양재 권사 및 임직대상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문의: 010-2214-0130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홍수 심판 이후 역사는 인간의 죄가 심판으로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과 마찬가지로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한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는데, 인류는 또다시 홍수 심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인구가 다시 크게 증가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메니아 고산 지대에 머물렀고, 고산 지대에서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평지로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만 이동한 게 아니라 당시로 보면 인류 전체가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 이동이 가능한 것은 언어가 하나였고, 단일 민족처럼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성경에서는 ‘시날 평원’, ‘시날 평지’라고 밝힙니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넓은 평야로서 과거 에덴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은 훗날 바벨론으로 알려질 지역입니다. 그들은 이 평지에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단지 탑만 쌓은 게 아니라 도시와 성을 건설했습니다. 고산 지대에서 살 때는 주로 나무를 사용했지만, 평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벽돌을 이용해서 건축했고,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4절).

이 고백 속에 세 가지 죄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라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 되어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하나 됨이 아니라 죄로 인한 잘못된 하나 됨입니다. 당시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죄의 무서운 힘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인간을 하나 되게 합니다. 죄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힘을 이루면 사탄이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고, 온 인류를 무신론의 공동체로 묶고자 하는 무서운 죄의 연합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진화론으로 창조를 부정하고, 거짓된 이념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죄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의 꿈을 심판하시다

창세기 11:1~9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념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에서 성을 개인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어떤 수술 없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고만 하면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됩니다.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유럽 나라가 그 흐름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의 질서, 양성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자신이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동기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빌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주를 기억 속에서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위대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확신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성취, 주어진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것을 자꾸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바벨탑을 쌓고, 거대한 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과 의도적인 불순종

둘째,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한 것은 창조주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계속해서 바벨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기업, 어느 도시가 더 높은 건물을 세우는지를 경쟁합니다. 그러나 위성사진으로 보면 모두 그제 그것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를 가지고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기술력이자 능력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여기게는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나는 행복해”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을 줄까요? 고층 건물에 올라가면 더 불안할 것입니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가 달의 남극에 접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위대한 일이고, 성공적인 업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에 오르고, 화성에 오르고, 목성에 오른다고 그곳에 하늘이 없을까요? 계속 올라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입니다. 하늘에 어떻게 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결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하신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거부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의 약속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믿지 못했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지기보다 하나로 존재하고자 했습니다. 고산 지대에서 평원으로 내려올 때도 같이 움직이고, 흩어지기보다 거대한 성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 우리가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고 했고,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표현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셔야 할 만큼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탑을 쌓아도 진정한 하늘로부터는 정말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의 꿈을 제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므로 바벨의 꿈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을 흩어지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인류는 바벨의 꿈과 하나님 나라 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바벨의 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6~8절).

인류가 흠어진 결과로 언어가 혼란해진 게 아닙니다. 언어가 혼잡해진 결과로 인류가 흠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벨에 탑을 쌓는 그들의 꿈을 깨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점차 분열하게 되고, 흠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위대한 성취나 도전도 하나님께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흠으심으로 또 다른 심판을 하셨습니다. 죄로 결속된 하나 됨을 깨뜨렸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랄’입니다. 그 뜻은 ‘어지럽혀지다’, ‘뒤범벅이 되다’, ‘혼란스럽게 되다’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발랄’에서 앞에 ‘르’가 탈락하면서 ‘바벨’로 축약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내용이 없을까 해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언어학에도 ‘단일언어 기원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언어를 추적하면 약 7천 개가 있는데, 모든 언어의 밑바탕이 되는 하나의 일반 원리가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에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가설입니다. 또 7천 개나 되는 언어를 사람들이 노력하면 학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언어인 것 같지만 보편적인 문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문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하나의 언어였고, 그것이 흠어짐으로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다는 보편 문법 가설도 주류 언어학에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반 언어학에서도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언어마저 진화론을 갖다 붙여서 하나의 단어 혹은 발음이 진화해서 문법적인 체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발생부터 언어로 체계화되는 모든 것에 진화론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오랜 세월 동안 진화론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발전한 것입니다. 함경도에서 ‘ㄱ’이 나오고, 전라도에서 ‘ㄴ’이 나오고, 점차 발전해서 한글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언어학에서도 진화론을 대입해서 진화로 언어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고, 인간들이 문법을 만들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흠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흠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흠어짐으로써 온 인류가 7천 개 가까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종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온전히 구속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온전히 구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벨의 꿈을 심판하시며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여러 나라와 민족 사람들, 바데 사람, 엘림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등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신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

었습니다(행 2:1~12).

여러 가지 해설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들의 체계화된 언어를 외국어로 듣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원래 하나였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했습니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법 지식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자기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을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역사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역사로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에 내려진 심판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빠른 시일 내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흠어진 인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의 심판을 받아 바벨의 꿈은 깨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은 죄의 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안티(Anti) 바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혼잡과 분열, 타락한 질서를 질서와 거룩한 하나 됨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바벨탑을 쌓듯이 끊임없이 이 땅에 진화론, 무신론, 인본주의의 성을 쌓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는 끊임없는 바벨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 스스로 성을 규정한

는 것도 또 하나의 바벨의 꿈입니다. 바벨의 꿈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뜨려집니다. 세상의 이론과 논리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데 무슨 말인가?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한데 왜 반대하느냐?”고 말합니다. 진화론, 무신론, 인본주의가 전 세계에서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흠으시는 하나님 심판의 일종이었습니다. 죄의 힘으로 함께 모여 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거리 두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시대 바벨의 꿈을 저지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징계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또 다시 바벨의 꿈을 이어가는 인간의 꿈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바벨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바벨의 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의 꿈이 아닌 성령의 꿈을 좇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을 꿈을 좇아

인간이 주인 되고,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헛된 이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순절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강림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좇아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행복의 조건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 혹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기쁘거나 즐겁거나 만족을 느끼는 조건에 차이가 크다.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나 풍족함 역시 같은 조건에서도 그것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힘든 까닭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맞는 행복을 찾아 헤맨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한 삶이라 말하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예일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강좌를 개설했을 때 전체 학생의 1/4이나 되는 1,200여 명이 동시에 수강 신청했던 것을 보면, 행복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무척 높음을 알 수 있다.

하버드대학 ‘성인발달연구소’는 1930년대부터 행복의 조건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3개의 독립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268명의 하버드대학 2학년 남학생(대부분 백인, 남성, 부유층), 468명의 보스턴 빈민가 고등학교 중퇴자(대부분 이민자, 남성, 빈곤층), 90명의 IQ 140 이상의 여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설문조사, 5년에 1회씩 건강검진, 15년에 1회 직접적인 면담 조사를 통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시절 삶의 어떤 요소에 의해 노년의 행복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했다. 이들 중 일부가 아직 생존해 있어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간보고서를 분석해서 2002년 <행복의 조건(Aging Well)>을 발간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4번째 책임을 맡았던 하버드 의대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와 연구팀은 오랜 분석 끝에 행복한 노년을 위한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제시했다. 거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출세, 명예, 학벌 혹은 학업성적 같은 것은 없었다. 첫째, ‘**고통을 해소하는 방어기제로써의 인간관계**’, 둘째, ‘**지속적인 배움의 태도**’, 셋째, ‘**안정적인 결혼생활**’, 넷째, ‘**비흡연 (혹은 흡연하였으나 45세 이전에 금연한 경우)**’, 다섯째, ‘**알코올 중독 없음**’,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 일곱째, ‘**적절한 체중 유지**’가 그 조건이었다. 50세를 기준으로 이 7개 가운데 5~6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80세가 됐을 때 50%가량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며, 불행하다고 한 사람은 5% 이하였다. 반면 이 중 3가지 이하를 갖춘 사람들은 80세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 열거된 7가지 조건들은 젊은 시절에 충분히 통제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중년까지 자기가 쌓아 온 좋은 습관들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다.

“비정상적 관계에서는 강한 사랑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잘 지키는 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 습관 중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배움의 태도다. 이 태도는 시대의 변화를 노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치매나 인지장애를 극복하는 훈련이 되기도 한다. 또 중요한 요소는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중독, 마약, 도박, 성중독 등은 인간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원인이기에 중독을 멀리하고 차단하는 습관을 젊은 시절부터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유지는 노년에 잘 생길 수 있는 만성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을 억제할 수 있어서 육체적 건강 유지에 중요한 습관이 된다.

<행복의 조건>의 저자가 분석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고난에 대한 성숙한 방어기제다. 삶의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을 고난 혹은 고통이라고 보고, 그것을 잘 대처해서 넘길 때 행복의 상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고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어기제는 인간관계인데, 특히 40대 중반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 동료, 종교적 동료 등이 될 수 있다. 또 관계의 빈도보다 강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연구의 설문에서는 강한 인간관계를 밤 12시 이후에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관계를 예로 들고 있다. 그 관계를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한다. 50대 이전에 형성된 배우자나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분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할 것이다. 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질병이나 사고의 고통을 더 잘 견디고, 회복도 다른 사람보다 빠르며,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육체적 건강을 잘 유지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부와 친자녀 특히 많은 자녀가 있는 정상 가정에서는 사랑의 관계 형성이 더 쉽다. 그러나 불륜, 동거 등 비정상적 관계에서는 강한 사랑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잘 지키는 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남자와 여자

낙태와 생명 존중

노지준 집사
(서초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최근 부산과 인천에서 영아를 암매장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했다. 경찰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들의 행방을 파악하는 등 조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에 국민들은 예외 없이 어떻게 부모가 어린 생명을 저버릴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경악했다. 태어난 유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데는 온 국민이 이견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해 산모가 태어나기 전의 태아를 낙태함에 따라 사라지는 생명에 대해서는 그 반응이 크게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아이들이 매일 3천 명이라고 한다. 연간 11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25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이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잉태된 아이 5명 중에서 4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낙태로 인해 생명을 잃는 아이들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19년 2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낙태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인들에게 “무고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함께 건설하고 태어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근본적 진리를 확인할 것”을 권면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지아주 주지사 후보였던 스테이시 아브람스는 합법적 낙태권을 주장하며 “미국은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한 Roe v. Wade 대법원판결을 통해 재생산 정의를 구현했다”라고 말했다.

성경적 세계관 사역자인 스콧 D. 알렌은 자신의 책 <사회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에서 ‘재생산 정의’라는 용어는 1994년 ‘재생산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계 여성’이라는 단체가 최초로 사용한 표현으로, “여성의 개인적 신체 자율권을 유지하고, 아이를 가지거나 안 가질 수 있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인권”이라고 소개했다. ‘인적 신체 자율권’은 궁극적으로 최종 권위가 하나님 또는 과학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권적인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흘러나온 관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이를 안 가질 인권”은 산모가 원한다면 태 속의 아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는 저항할 수 없는 아기에게 가해지는 살인’이라는 인식을 피하고자 ‘태아’는 엄마의 신체 일부에 불과하고, 낙태는 일종의 피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물론에 기반한 문화 마르크시즘의 또 다른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존 스토틀 목사는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태아가 인간이 되는 결정적 순간은 수태와 탄생 사이 어느 지점이 아니라 바로 수태(난자와 정자의 융합) 시점임을 일깨우고 있다. 실제 1967년 제1차 낙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정자와 난자의 융합 이후부터 신생아가 탄생할 때까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수 없다”고 선포했다. 수태 이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8주가 되면 아이의 사지는 물론이고 지문까지 분명히 보인다. 독립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을 가진 뱃속의 존재를 과연 엄마의 ‘단순한 신체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

존 스토틀 목사는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가 살인’이라는 쟁점을 교묘히 피하고자 벌이는 언어 플레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공적인 낙태는 태아 살해이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이며,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이다. 더불어 존 스토틀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장애아 임신’과 같이 낙태 찬성론자들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임신에 대해서도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엄격한 낙태 방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 치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서 선동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것을 조금이라도 꺼리는 마음을 극복하도록 돕고, 그들이 가능한 모든 개인적, 의학적,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1세기 로마인들이 갓 나온 아이들을 강에 버릴 때 이를 주워 키운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이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자 기꺼이 자신의 삶 일부를 드린 자들이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시 139:13, 16).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를 구성한 재료들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미 모태에서 우리의 완성된 틀을 보고 계신 분이시다.**

그 예배에 가면... 1. 그들의 전도이야기 2. 다시 새롭게, 언제나 뜨겁게!

다시 새롭게, 언제나 뜨겁게!

전도 빙하기 녹이는 ‘초대적 사역’과 ‘경험적 예배’

이 시대를 ‘전도 빙하기’라고 한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매주 새롭게, 언제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 빙하기를 녹이고 있다. 열린새신자예배 담당 조준목 목사에게 전도의 빙하기를 녹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초대적 사역’과 ‘경험적 예배’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전도 빙하기’라는 말이 나왔을까? 사람들은 왜 이토록 교회를 미워하고, 오해하게 되었을까? 조준목 목사(열린새신자예배 담당)가 그 이유를 진단했다.

“이 시대 영적 상태를 보면 ‘전도 빙하기’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부터 열린새신자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라 본당에는 스태프 스무 명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텅 빈 본당에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회중을 향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비어있는 본당의 모습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만날 현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고, 교회 이미지가 악화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탈기독교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후기 기독교 사회(Post-Christendom)’로 접어들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교회가 문을 열어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크리스천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준목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감이 들었다.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암담하기만 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인지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이 시대적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자(전도자)’의 존재와 역할입니다. 2015년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 갈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응답자 36.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젊은층 복음화율을 3~5%로 보는데, 응답자 36.8%가 ‘교회에 가 보겠다’고 했다면 정말

높은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도 유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신자 93%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기면서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 곁에는 반드시 ‘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대상자 곁에는 그들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기도한 끝에 어머니를 전도한 딸이 있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동생을 전도한 오빠도 있습니다. 열린새신자예배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전도에서 초대자의 존재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초대자의 존재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는 초대자의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들과 동역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린새신자예배를 ‘초대자들과 동역하는 예배공동체’라고도 부른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전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초대적 사역’과 ‘경험적 예배’입니다. ‘초대적 사역’은 초대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1:5’ 비율을 강조합니다. 한 명의 초대자에게 다섯 명의 스태프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섯 명의 동역자들이 전도대상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깁니다. 초대자가 전도대상자와 관계 속에서 전도하듯이,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들이 초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초대적 사역에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도자인 초대자만 전도대상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초대자이십니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들은 한 영혼을 향한 초대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품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적 사역’입니다.

‘경험적 예배’는 새신자가 교회와 예배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객관적 사실조차 개인의 주관적 의견



초대자(전도자)와 동역하며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

으로 해석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으로 전도하는 방법의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중요한 가치는 ‘경험’입니다. 실제 경험해보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면 수용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느끼고 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새신자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교회 로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이 시대 문화에서 이해하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환영도 새신자 각 개인에게 맞춰서 합니다. 새신자의 성향이나 정보를 초대자들과 먼저 소통해서 파악합니다. 그 덕분에 환영 인사가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렬하게 환영하기도 하고, 담백한 인사말로 환영하기도 합니다. 가벼운 눈인사만 하기도 합니다. 열린새신자예배 설교와 구성은 물론이고, 예배 순서와 진행방식, 무대 꾸밈과 영상 등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와 예배에서 좋은 경험을 얻어갈수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시도하는 열린새신자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앞으로 열린새신자예배의 사역과 비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는 1997년 시작되었습니다. 3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열린새신자예배는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언제나처럼 뜨겁게 사역할 것입니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2천 명의 초대자와 1만 명의 새신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새신자예배에서 ‘각별한 복음 수업(약칭 ‘별복음반’)’이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경험적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에 더 깊은 관심이 생긴 전도대상자들을 모아서 복음의 교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초대자와 전도대상자가 함께 와서 스태프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듣습니다. 지난해에는 파일럿 버전, 올해 초 1차 정식 버전으로 실시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초대자들을 위한 ‘초대자의 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초대자들을 격려하고, 중보기도하며, 동역하는 시간입니다. 간증을 나누고, 전도방법 교육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린새신자예배가 비전을 완수하고, 사역을 더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갈 동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본당을 꾸미고 안내하는 역할부터 중보기도, 무대 기획, 예배 기획, 촬영, 영상제작, 디자인 등 수많은 영역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초대하는 이 귀한 사역에 많은 성도님의 관심과 기도, 동역을 기다립니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모집
마감: 9월 10일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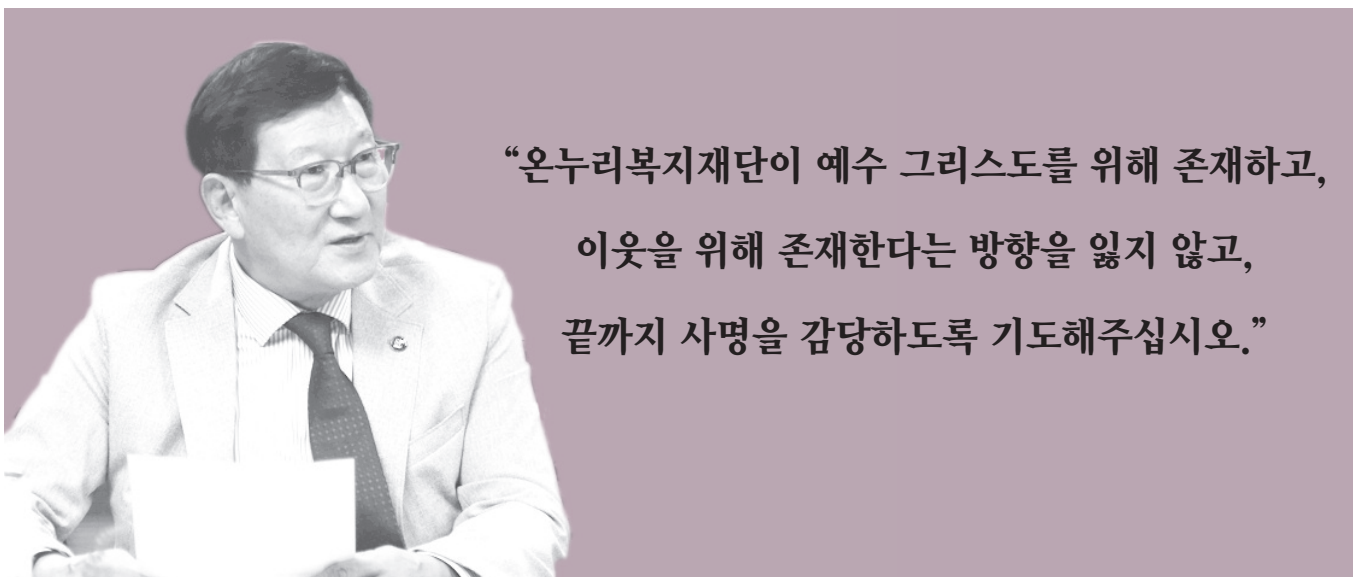
만나고 싶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온누리복지재단 설립 24주년에 맺은 열매라 더 탐스럽고 풍성하다. 지난 8월 25일(금)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송영범 장로가 '제6기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은 교육, 환경, 복지 등 16개 분야에서 한 사람씩 위촉하는데, 송영범 장로는 복지 분야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송영범 장로는 서울시 복지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송영범 장로에게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 위촉의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들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되도록’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 송영범 장로의 다짐



“온누리복지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것은 개인의 경사가 아닙니다. 지난 24년 동안 이어진 온누리복지재단의 아름다운 섬김이 인정을 받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헌신적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온누리복지재단은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으로 위촉되면서 더 많은 섬김과 나눔의 기회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서울시의 행정 내용을 전달받았고, 복지정책 실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 소통 채널을 활용해서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살아 있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만큼 좋은 정책과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명예시장 위촉은 24년 동안 이어온 온누리복지재단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어떤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누리복지재단의 핵심 가치는 사랑, 정직, 섬김,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언제나 기독교법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복지재단 임직원들은 복지대상자들을 직업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청소년들과 장애인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섬깁니다. 복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온누리복지재단을 만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복지재단은 꾸준한 교회와 후원자들의 후원 덕분에 온누리요양센터의 경우, 일부 발생하는 수익도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액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복지재단 17개 산하 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누리복지재단 임직원들은 복지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섬기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온누리복지재단만의 특별한 힘입니다. 아마도 이를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을 만나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는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쉼터에서 생활하도록 돕고, 꿈을 찾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영적 멘토가 되어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삶의 방향성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 맺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한 청소년이 1년 반 동안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했는데, 그곳의 선생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비로소 삶의 이유와 방향을 되찾았습니다.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그 청소년이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온소미장학사업’을 통해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년은 학기 내내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청소년처럼 꿈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온누리복지재단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이유를 깨닫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찾은 비전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 온누리복지재단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흉내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온누리복지재단의 원동력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섬김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임직원들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전도의 사명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문성, 섬김의 자세, 전도의 사명이 결합 돼 지치지 않고, 더 큰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꾸준한 후원과 지원도 있습니다. 관심과 후원, 사랑과 기도 덕분에 온누리복지재단이 24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힘은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함께 섬기는 임직원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힘차게 도약할 온누리복지재단의 계획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기도제목도 나눠주십시오.

“온누리복지재단의 비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입니다. 이 비전을 완수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가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사회, 건강한 청소년 자립, 장애인의 사회일원으로서 행복한 삶,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실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하 시설들을 통해 각 분야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이 일을 온누리복지재단이 잘 감당해내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십시오. 온누리복지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헌신적으로 섬기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온누리복지재단의 섬김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JDS의 그 뜨거웠던 여름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박세찬 성도
(이촌공동체)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찬송가 'Amazing Grace'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지난 겨울,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신창이가 된 나를 'JDS(예수제자학교)'로 이끄셨다. 그리고 나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셨다. 은혜가 가득했던 JDS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가 그렇게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롬복은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했다. 끊겨 있는 도로, 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더운 날씨에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나는 악취, 주인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들개, 차에 치여 죽은 개들의 사체 등 나열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곳에서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인도네시아 롬복의 기독교 인구를 0.3%로 추산한다. 99%가 무슬림이다. 공항을 지나 롬복 시내로 가면서 눈으로 본 모스크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척박한 곳에서 이석희 선교사님 부부는 18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 선교사님 가정을 향한 무슬림의 핍박이

말도 못 할 지경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0.3%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향한 살해 위협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그들처럼 맑게 웃는 사람들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

우리 아웃리치팀은 이석희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보수하는 일을 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해 본 적 없는 페인트칠과 시멘트 작업에 온몸이 땀범벅 되었지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낮은 자세로 섬겨주신 팀장님과 형제님들 덕분에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내 마음을 크게 울렸던 일이 있다. 작은 승합차 하나에 몸을 실은 스무

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숨바섬으로 6개월 동안 선교를 떠났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20대를 떠올렸다.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떠났다. 눈물이 맺힌 우리와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롬복의 형제자매들을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 아웃리치에서 느꼈던 감동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야겠다.

필리핀 아웃리치

양준규 성도
(허브교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복잡하다. 감사함이 크지만, 원망도 일부 있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참 복잡한 감정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괴롭고 큰일을 겪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며 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JDS(예수제자학교)로 보내셨다.

JDS를 시작하기 전 나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 기도를

JDS 필리핀 아웃리치에서 응답받았다. 아웃리치팀 팀원들은 준비 과정부터 철저히 본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융화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세상의 공통점이 하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였다. 형제님들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는 QT 말씀과 이야기들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앞으로 신앙생활에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 같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서 정말 감사하다.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필리핀 보홀 공항에서 두 시간 정도 더 들어간 곳에 숙소와 사역지가 있었다. 숙소로 도착해서 처음 든 생각이 '정말 열악하다' 였다. 개미군단, 도마뱀과 함께 방을 썼고, 좁은 침대 하나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자야 했다. 선교사님을 만나러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더 열악한 현실을 봤다. 말이 교회지 미완성된 공터에 가까웠다. 태풍이 오면 날아갈 것 같은 지붕과 비를 피할 수 있을까 싶은 환경, 에어컨을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호사였다. 이 환경에서 과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윈 선교사님과 남미선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 선교사님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다. 어윈 선교사님은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슬리퍼를 신고 손으로 시멘트를 문지르며 변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꼭 예수님 같았다. 참으로 낮은 자세로 그곳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더운 날씨에 몸으로 하는 작업이 정말 고됐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야자 열매를 따서 건

내주고, 잼프루트를 먹게 해줬다.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것 같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을 수 없는 곳이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달콤한 코코넛과 망고가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굶기지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다.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가 좋은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한다.

몽골 아웃리치

정솔 성도
(마포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현지 목회자를 위한 캠프 개최였다.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지쳐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들었다. 그분들이 쉬면서 회복하는 캠프를 개최하려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선물과 소소한 이벤트 등 고려할 것들이 많았다.

나는 캠프에서 발표할 간증을 준비했다. '힘든 현지 목회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

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이런저런 마음을 안고 몽골로 향했다.

캠프에는 몽골 각지에서 온 목회자들이 왔다.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은혜로운 소그룹 나눔도 했다. 그들의 필요를 알맞은 시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다. 몽골 사역자들과 우리 팀 모두가 행복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준비했던 간증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눴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들어주셨다. 이철희 선교사님의 주도로 몽골 목회자들이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선교사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분들도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이 몽골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말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모든 순간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왔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찬양했다.

텔레지공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문명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

렸고, 행복했다.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 몽골의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었다. 분명 고대의 몽골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기에 자연스레 사마니즘과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 같다. 몽골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때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몽골의 작은 교회, 게르 안에서 드렸던 예배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심는 시간이었다. 내가 받은 넘치는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기를 소망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겔 37:28)

얼마 전 한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을 봤다. 우크라이나의 한 평범한 소녀의 일상을 전쟁 전후로 나눠서 편집한 영상이었다. 생일에는 가족의 축하를 받고, 평소에는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꿈을 향해 달려가던 소녀의 모습이 정말 해맑았다. 그러나 전쟁이 하루아침에 그 소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전쟁으로 인해 건물들이 파괴되고, 가족들은 굶주림을 피해 도망 다녔다. 소녀의 모습에는 행복하던 표정과 꿈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있었다.

꿈을 잃고 희망이 사라진 자들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이다. 에스겔은 이 소녀와 같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여호야킨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25세부터 5년 동안 인턴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가 사로 잡혀 그발 강가로 갔을 때는 막 인턴을 시작할 시기였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꿈을 키우며

살아왔지만, 그 꿈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이 30세부터 제사장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꾸던 꿈과는 전혀 다른 소명의 길을 열어가셨다.

그가 처음 본 환상은 여호와와 보좌에 바위가 달린 것이었다(1장). 여호와와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암시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온갖 부패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발 강가로 움직인다(10장).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예언이었다.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불패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불타고 파괴되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했는가?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에게 무릎 꿇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포로로 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에스겔이 했던 예언의 중심이다. 에스겔의 유명한 마른 뼈 환상(3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되는 예언을 한다(40장~43장).

그의 예언대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포로들과 함께 계시던 여호와와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기업을 물려받는다. 메말랐던 예루살렘에서 점점 물이 솟아나 강으로 흐르고, 그 강 주위로 생명의 상징인 나무가 자란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에도 흘러가 생명이 사는 바다가 되어 어부들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환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예언의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이름을 회복한다(겔 48:35).

에스겔은 생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했다. 예언의 성취는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보여주는 더 큰 소명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절망 속에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이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다. 여호와와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그발 강가로 움직였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고전 3:16).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다. 절망과 방황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김성욱 목사
(강동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9월 11~17일
〈히브리서〉 7:1~9:28



묵상포인트 1: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인류를 위한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인간 레위 지파 제사장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묵상하자.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으로,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과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계열)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존재로서 아브라함(레위의 조상)을 축복하고 그에게 십일조를 받은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유다 지파)은 레위 지파의 불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뛰어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약점을 가진 인간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님은 단번에 흠 없는 자신을 드려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은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며,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언약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어떠한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지 묵상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신다. 이 땅에서 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섬기는 것은 잠장막의 모형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돌비에 새긴 시내산 첫 언약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분 백성이 되리라는 완전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첫 언약에 주어진 예법(규례)과 성소는 불완전한 것이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이 유효할 뿐이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속죄의 수단이다. 동물의 피는 일시적인 속죄에 불과했으나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한지,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구약 시대에 동물 제물의 피는 불완전했기에 지속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성령에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버리고, 정결한 양심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게 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만유의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고수하고 있는 불완전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돌아보자.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죄로 인해 낙심될 때마다, 고난으로 좌절될 때마다 예수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예수님의 보혈은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속죄의 수단이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2천여 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W형제를 위해서!

안산M센터 아람어예배 W형제를 위해 기도해주시고요. W형제는 이집트에서 난민 신분으로 한국에 온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 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안산M센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W형제는 난민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와 자녀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야 했습니다. 머물 집이 없어서 고시텔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W형제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W형제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돼 몇 차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환각 증상과 졸도 현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W형제의 환각 증상과 졸도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해주시고요. 그가 건강을 되찾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시고요. 무엇보다 W형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아람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다!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으면 한 발자국도 불안하며 가로등 없는 밤길은 두려워진다. 이는 미지의 길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계적 반응이다. 그렇기에 앞을 보고 싶고 알고 싶어진다.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다. 불투명한 미래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 앞을 보고 싶고 알고 싶다. 그 마음이 건강한 신앙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할 때 양털과 이슬로 알려 주셨고, 다

니엘에게는 환상과 천사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다.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임재 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날마다 그때를 경험하고, 친히 알려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아내기에 작다. 때때로 사람의 눈과 귀는 어둠 속에 잠식된다. 작고 세밀한 음성일수록 명확히 듣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분별의 두 번째 방법은 곰곰이 살펴보면서 고민하는 이성이다. <잠언> 24장 후반절을 보면, 어느 날 지혜자가 누군가의 포도밭을 지나간다. 그곳에는 여기저기 가시가 있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었다. 게다가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지혜자는 살펴본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고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쫓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네게 이를 것이다”(잠 24:33-34).

지혜자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고민 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성은 신앙을 배척하는 무기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을 돕는 하늘의 도구다. 11세기 신학자 안셀무스는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오만이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태만”이라고 말했다. <잠언> 24장의 지혜자는 신앙 안에서 이성을 사용했고, 하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었다.

분별의 핵심은 ‘신앙 안에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뜻을 간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롬 8:26-27).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만 온전한 하늘길을 걸어갈 수 있다.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

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면 그 어떤 선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향할 줄 믿는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빌 2:13).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심에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요 15:7).



최종현 목사
(하늘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멈춤’과 ‘쉽’

건강한 삶을 위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 숨이 가볍게 차오를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운동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런데 운동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무리할 때가 있다. 욕심과 경쟁심이 생기면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경쟁심뿐만 아니라 준비운동이 부족했거나 그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부상당할 수 있다. 만일 달리기를 즐기던 사람이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답답함을 경험한다. 다치면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활기를 얻었던 활동을 멈춰야 한다. 운동하다가 부상당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멈춤’과 ‘쉽’이다. 빠듯한 발목에 신체 활동을 하면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 다친 몸은 활동이 아니라 쉬가 필요하다. 마음이 다소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몸은 쉬를 통해서 회복의 단계를 밟는다.

‘멈춤’과 ‘쉽’을 인간관계와 부부관계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몸의 근육과 뼈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다양한 충격으로 빠듯할 수 있다. 물론 쉽게 넘어갈 수준의 관계적 충격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고통이 있는 관계적 통증이라면 멈춤과 쉬가 필요하다. 손상된 관계를 무리하게 회복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 통증이 있는 관계를 수용하고, 멈춰서 기다려 주는 단계가 필요하다.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추천하는 쉬는 시간은 이틀에서 삼일 정도다. 이 시간 정도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쉬면서 상태를 지켜보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부부관계에서도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가능한 만큼 참고, 지켜보는 게 때로 필요하다. 통증이 너무 싫어서 빨리 무엇인가 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충분히 쓰러진 감정의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필요하다. 시큰거리는 관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부부는 무엇인가 배우고 얻을 것이다.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워 빨리 “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계적인 영역에서 성숙한 사람은 감정과 생각, 사고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수용할 수 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늘 옳은 게 아닐 수 있다.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 감정을 검증해보거나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성적으로 빠듯한 관계를 다스릴 수 있다면 부부의 관계가 더욱 성숙할 것이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다면 분명 감정이 심하게 손상됐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는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닌

말을 했는가?” 정도로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이성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일렁거렸던 감정의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세심하게 마음을 다독이는 과정보다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목이 빠듯했을 때 회복을 위해서는 압박붕대도 감을 필요가 있다. 압박붕대는 불필요한 신체활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부상당한 사람이 다친 곳에 압박붕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이고 활동하는데 조심하게 된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 부상을 당한 부분이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빠듯했다면 그 지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러 불편한 곳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의 지점에 관심을 갖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심스럽게 해 보아야 한다. 성장하려고 하는 부부는 부부관계의 충돌 이후 조심스럽게 빠듯했던 지점에서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부상에서 회복된 후 자신이 좋아했던 운동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관계의 상처를 극복했을 때 더 깊은 친밀과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다.



황국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손상된 관계를 무리하게 회복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 통증이 있는 관계를 수용하고,
멈춰서 기다려 주는 단계가 필요하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라는 설익은 자가 처방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속히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짐을 벗어버리기보다 고통의 짐을 지면서 자신과 관계를 살펴보는 게 더 유익하다. 관계가 비뚤했다면 먼저 ‘멈춤’과 ‘쉽’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물론 상황과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부부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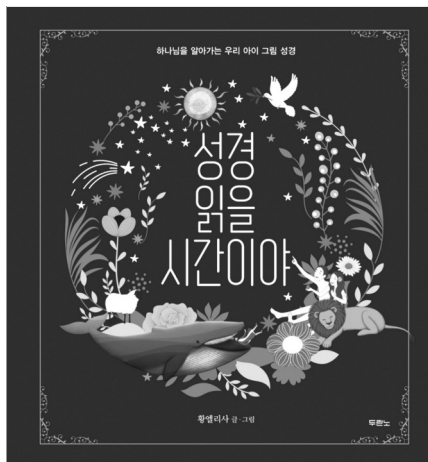
운동 중에 다쳤을 때 얼음찜질이나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 적당한 시간 얼음찜질 등을 하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와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감정보다 이성적인 접근이 때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듣는 이에게 유독 고통이 되는 단어가 있다.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정한 어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됐다면 널뛰는 부정적 감정에 휩쓸려 마음이 안 좋아지고, 행동도 부드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부부관계는 급속히 냉각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냉정해질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 간혹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의 정서를 꺾치고 심연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냉철함을 찾는 게 좋다. “그렇게 슬픈 일인가?”, “그렇게 배우자가 석고대죄할 만한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까운 책’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그림으로 만나는 성경



〈성경 읽을 시간이야〉
황엘리사 글, 그림 | 두란노 | 32,000원

“애들아, 성경 읽을 시간이야!”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쏠쏠 달려와 성경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성경 읽을 시간이야〉는 그런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사랑스러운 책이다. 파란색 바탕에 원색의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표지와 본문을 열어보면 아름다운 그림에 환호성을 지르게 된다.

이 책의 작가 황엘리사의 그림은 다정하면서도 따뜻하다. 모나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온화하고 화사하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따뜻한 한국의 정서가 살아 있다.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글인 성경을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그리고 썼다고 한다. 초점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맞춰서 작업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수많은 어린이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서 4년 동안 작업에 매진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어서 단순히 글이나 그림을 통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작업했다.

작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한 컷 한 컷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 이 책에 온전히 담기기를 기도했다. 작가는 창의적이고 예쁜 그림보다 성경 속 내용을 올바르게 묘사하고자 노력했다고 고백했다. 글에 다 담지 못한 성경 속 묘사들을 그림에 담고자 했고, 독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료를 많이 찾고 연구하며 그림을 채워 갔다.

신구약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체를 읽기 어렵다.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야〉는 성경의 핵심 내용 13가지를 주렸다. 그러나 그림이 있는 성경 요약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성경 이야기를 가급적 그대로 살리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에서는 열 가지 재앙을 요약하지 않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 작업했는데, 이는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예수님의 죽

으심을 표현한 ‘십자가와 구원’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인 십자가 사건과 구원을 잘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내용도 신경을 많이 썼다. 저자는 영어성경과 다양한 우리말 번역본을 사용해서 성경 내용을 되도록 살리려고 애썼다. 쉽게 읽히려고 각색을 많이 하면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퇴색되거나 희석되기에 원래 의미를 잘 살리려 많이 노력했다. 편집 과정에서도 성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번역본을 확인했다. 어려운 단어는 쉽지만, 보다 정확하게 바꾸려고 애썼다.

이 책에 얹힌 에피소드가 있다.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창조과학사역을 하는 분이 출판사를 방문했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 1장 ‘천지 창조’ 첫 문장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인데, 이분이 그 문구를 보고 감동했다. 많은 그림 성경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나와 있는 책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정서에 맞는 따뜻한 색채, 성경 고증에 충실한 그림,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알고자 노력한 본문이 있는 이 책이 더 많은 어린이에게 읽히고,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 정민숙 팀장(두란노 출판부)

일상에서 탄소 배출 줄이기 ‘밥상 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군침 도는 김치찌개, 노릇노릇 구워진 소고기, 싱싱한 쌈채소...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이 맛있는 한 끼 밥상이 온실가스 10.5kg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온실가스 10.5kg는 승용차 한 대가 43.9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양이다. 배출된 온실가스 10.5kg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1.6그루가 필요하다. 같은 식단으로 하루 한 끼를 한 명이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가정하면, 온실가스 73.7kg를 배출하는 셈이다. 이는 승용차 한 대가 307.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같다. 온실가스 73.7kg는 소나무 11.3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가 먹는 매끼에서도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음식 재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음식 재료와 가공 방법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한 끼 식사에서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으면 온실가스 0.3kg, 김치찌개 대신 된장찌개를 먹으면 온실가스 0.8kg, 소고기 구이 대신 삼겹살구이를 먹는다면 온실가스 5.7kg를 줄일 수 있다. 밥상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 끼 밥상 탄소 계산기’(interactive.hankookilbo.com)를 사용하면 된다.

서랍에서 다시 꺼내 보는 영화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

그날에는 모든 아픔과 눈물이...



‘울지마 엄마’
이호경 감독 / 다큐멘터리

담겨 있다. 그 기억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와 선물을 주는지를 찬찬히 보여준다. 자신의 죽음보다 남은 가족을 걱정하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암 환자들을 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영화 ‘울지마 엄마’는 제7회 한국기독교영화제 개막작이다.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 등에서 볼 수 있다. 가격은 7,7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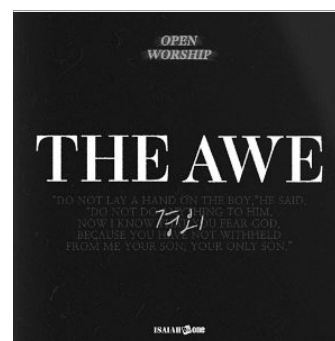
삶이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조금 무덤덤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듯해도, 어느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 걸쳐지면 두려움이 앞선다. 진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할까?

영화 ‘울지마 엄마’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영화는 4기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영화 ‘교회 오빠’로 전 국민적 반향을 일으켰던 이호경 감독이 제작했다. 이호경 감독이 위암 4기를 선고 받은 누나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카메라를 들었다. 누나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만난 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 중학교 음악 교사였던故 김정화 씨, 두 딸의 엄마였던故 김현정 씨, 대학병원 의사였던故 정우철 씨의 이야기를 오가며 영화가 흘러간다.

“하나님, 따뜻한 새 학기까지 만이라도 아이들 곁에 있게해주세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엄마의 기도가 가슴을 저리게 만든다. 엄마 없이 긴 시간을 보내야 할 아이들을 위해 단 하루만이라도 더 곁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엄마의 그 기도가 무심코 흘러보내는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이 영화에 나오는 암 환자들의 일상이 고통스럽고,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날까지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아이자야 썅스티원 곡

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모든 아픔과 눈물이 씻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찬양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는 멜론, 지니, 벅스, 유튜브 등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아이자야 썅스티원은 예배사역 공동체다. 찬양 사역뿐만 아니라, 다음세대 예배자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아이자야 썅스티원 예술학교’에서 교육 사역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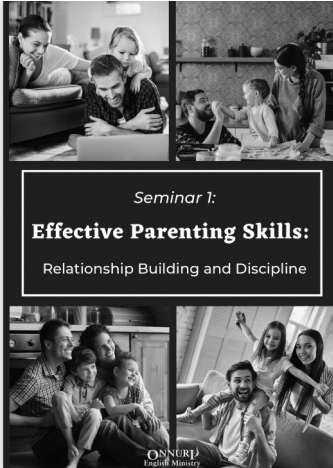
찬양 듣기

영어예배 ‘자녀 양육 세미나’ 개최

9월 17일 오후 1시 도곡 제2교육관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에서 ‘자녀 양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17일(일) 오후 1시부터 도곡 제2교육관(중앙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B동 5층)에서 열린다. 자녀 양육 세미나는 영어로만, Q&A는 영어와 한국어 동시에 진행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영어예배 자녀 양육 세미나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구축

과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을 가르쳐 준다. ‘효과적인 양육 기술 : 관계 구축 및 훈육’을 주제로 이윤희 교수(햇빛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상담학부)가 강의한다. 11월 12일에도 자녀 양육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기복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2-3215-3684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일.하.세 아카데미 ‘Home Coming Day’

9월 23일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일.하.세 아카데미(이하 일.하.세) 7주년을 맞아 ‘Home Coming Day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9월 23일(토)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일.하.세 졸업생이거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QR 코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하.세 아카데미 ‘Home Coming Day(홈커밍데이)’에서는 방선기

목사가 설교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로잔 운동과 사회 참여, 일터 신앙’을 주제로 특강한다. 일.하.세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를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문의: 010-8480-9970 / 김다애 기자



9월 화요성령집회 ‘Fresh Wind’

9월 화요성령집회 ‘Fresh Wind’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온누리교회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9월 12일 이서진 목사 ‘영광의 바람’ (고후 4:7-18), 19일 최성민 목사 ‘소명의 바람’ (수 1:1-9), 26일 정한호 목사 ‘승리의 바람’ (렘 6:10-20)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두란노 일일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 ‘일일 결혼예비학교’ 3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26만 원. 두란노 일일 결혼예비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커플,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문의: 02-2078-3263

두란노 성서지리 19기 신약반 수강생 모집

두란노 성서지리 19기 신약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현장강의는 9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온라인강의는 10월 10일부터 주차별로 3강씩 업로드 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0만 원. 문의: 02-2078-3275



미야기 기·도·제·목

- 9월 10일(주일) ·순교의땅이었던 ‘미야기’ 지역이러브소나타 ‘미야기’ 주제(New Beginning)처럼 일본선교의 새로운 땅이 되고, 시작이 되기를
- 9월 11일(월)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롬 8:26-28)으로 생명이 살아나기를
- 9월 12일(화) ·참가자들이 러브소나타 ‘참가자 교육’ (9월 14일, 21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단의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 9월 13일(수) ·게스트와 출연진이 영적 자제로 깨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을 공언하고, 그 공언이 일본인들에게 호감이 되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 9월 14일(목) ·결신 유도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 소망을 지니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를
- 9월 15일(금) ·러브소나타 ‘미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본 기독교 청년들이 더 많아져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흥하기를
- 9월 16일(토) ·러브소나타에 참가하는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고, 서로 연합하고, 충만한 헌신자가 되어서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기를

NGO 더멋진세상, ‘교육지원캠페인’

코트디부아르, 말라위에 책상, 의자, 칠판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5월과 6월 실시한 ‘교육지원캠페인’에서 후원금 2백4십9만 원이 모금됐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이 후원금을 코트디부아르 차세대 문해교육, 말라위 영유아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용했다. 코트디부아르와 말라위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상과 의자, 칠판 등을 지원했다. / 홍하영 기자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9월 한 달 후원금 모집, 영양실조 아동 지원

NGO 더멋진세상에서 모리타니와 말라위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을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이번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후원금으로 모리타니와 말라위 어린이(6개월~15세) 약 470명에게 영양죽, 고단백 영양가루, 건강검진을 통한 약품 지원 등을 한다.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6

소중한 기념일을 더 특별하게!

CGN 선교 후원 ‘기특하데이’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 CGN 선교 후원 ‘기특하데이’ (이하 기특하데이)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일, 결혼기념일, 첫돌, 입학, 졸업, 입사, 임직 등 개인과 가정의 특별한 날에 CGN 선교 후원을 하는 뜻깊은 일이다. ‘기특하데이’ 후원금은 CGN 복음 콘텐츠 제작, 기독교 플랫폼 운영, 선교지 맞춤 미디어 선교, 한교 교

회 섬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기특하데이’ 후원자들에게는 기념일 후원증서를 전달한다. 정기 3만 원 이상 또는 일시 10만 원 이상 후원자들에게는 기념 굿즈도 보내준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CGN 홈페이지(cgntv.net)에서 후원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96-2243

시니어아카데미 9월 13일 개강

서빙고 두란노홀, 양재 드림홀

‘시니어아카데미’가 9월 13일 개강한다. 시니어아카데미는 시니어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서빙고 시니어아카데미는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란노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70세 이상의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아이스쿨(ischool

lionnuri.org)이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회비 5만 원.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드림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9월 13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서빙고(02-3215-3266) 양재(02-570-7522)

통일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7일부터 매주 토 온라인

‘통일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구글폼으로 신청서를 작성(상단 QR 코드 참고)하거나 아이스쿨이나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신청할 때는 ‘이름, 소속, 출생년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회비는

2만 원(교재비 포함). 통일선교학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8주 동안 통일과 관련된 강의와 조 나눔을 한다. 문의: 010-4337-5927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9월 17일 15:30 /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권순철 서준우 서진희 선원정 전보영 정소남 히보경	강남B 곽행자 김경민 박보미 박요한 이진욱	김정자 신국찬	이기쁨 이창섭 이한두루 장이은	이진영 정해웅	임경환 정선우	분당A 김보경 김아영 박영주 이수정 조옥화 황주은	분당B 박윤희 조경래	안향선 이성오	임수희	송파A 김성수 윤성용 이경혜 지영경 최진희	김영복 김현숙 신상순 유희순 한지오	여정례	푸른누리 김승태 조종성 최혜원
	강남C	강남D 강보람 김동영 김동은 박용일	강남E 서수희 이성우	경기A 김지선 김혜은 배부일 손은희	도곡 박노희 박지현 천예원 홍현숙	서초A 강수화 류수진 시윤정	서초B 권형욱 유지민 이용규 이용훈	서초C 문성희 신철호 주하영 황은정	송파B	양재A 권기순	양재B 김덕래 이범영 최재경 홍경숙		

CGN 직원 과테말라 아웃리치



/ 이선미 자매(CGN 제작기술실)

CGN 직원 과테말라 아웃리치팀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과테말라시티, 팻준, 아피틀란 호수마을, 안티구아에 머물렀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테말라 수도와 지방, 섬마을 곳곳으로 보내셨다. 남미에서 사역하신 김선근 선교사님이 CGN 미주지사와 동역하면서 ‘위성(온라인)신학교’로 열매를 맺은 이야기, 현지에서의 미디어 사역, 특히 CGN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나눠주셨다. 위성(온라인)신학교는 현지 사역자들이 코로나19 위협 속에도 어디서나 신학 과정을 수료하도록 도왔다. 김선근 선교사님은 <스쿨바이블>이라는 소책자도 제작하셨다. 지역 학교를 방문해서 이 책자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아웃리치팀원들이 학교와 교회사역을 함께 했다. 하루에 두세 군대를 방문하는 강행군이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테말라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할 수 있었다. 미디어로 은혜를 공급받아 성장하는 현지 사역자들도 만났다. 그들을 대상으로 영상제

축복이자 특권!

작과 촬영, 미디어의 영향력을 알리는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쉽게 알려주려고 사역 하면서도 계속 촬영했고, 매일 저녁 회의하고 영상을 정리하며 미디어 아카데미를 준비했다. 미디어 아카데미 참석자 80여 명에게 영상 구도를 알려주고, 조를 나눠 실습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촬영한 작품을 모아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미디어 아카데미를 마치고 수료증을 배부했다. 앞으로도 각자의 사역지에서 미디어 아카데미의 열매가 계속 맺히기를 기도한다. 실질적인 촬영에 필요한 장비 안내와 조명 설치에 관한 교육이 과테말라 미디어 사역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될 거라 믿는다. 아웃리치는 ‘나’를 위해서도 꼭 참여해야 한다. 일상에서 벗어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오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는 CGN 직원 아웃리치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꼭 누려야 할 특권이다.

신용산공동체 캄보디아 아웃리치



/ 조태연 성도(신용산공동체)

선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선교는 나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였다. 그러나 JDS(예수제자학교), 아웃리치, 무릎기도회, 여성기도회 모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켜주신 것 같다. 내 중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 첫날 사역은 숙소에서 40분가량 떨어진 ‘이화스령 보건소’에서 했다. 오전 9시 진료인데 그 전부터 진료를 보려고 그 무더위에 25km를 걸어오신 할머니와 아이들도 있었다. 미리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분들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웃리치 둘째 날에는 ‘쫘아뚝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의료선교를 했다. 아웃리치팀이 캄보디아어로 ‘좋은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현지 성도들의 눈, 순수한 표정과 마음, 영혼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쫘아뚝교회가 부흥하기까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싶었다. 예배드리고 나서 의료사역을 시작했다. 나는 준비해온 약들을 정리하고, 처방받은 약을 봉투에 넣는 일을 도왔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있었다. 아웃리치 가기 전에 ‘내가 의료선교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걱정했었는데 기우였다. 나는 약한 자, 작은 자,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를 돕게 하셨다. 아이들도 나를 도와주고 섬길 때 가슴이 뛰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누는 기쁨을 깨달았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아웃리치는 산교육의 현장이자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땀 흘리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많은 환자를 섬기며 진료하는 아빠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았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주셨다. 캄보디아 아웃리치 오기 전에 시카고에 2주 다녀왔다. 멋진 건축물과 박물관 등을 경험한 최고의 여행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더 재밌었고, 행복했다고 고백한다. 선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같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보내실지, 어떤 사역에 동참시키실지 기대된다.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	---------	---------	---------	---------	---------	---------	---------	---------	---------	---------	---------	---------	---------	---------

서빙고 ■ 가정사역 강 록 이성희 강해주 김진경 김광희 김미란 김수경 이승애 김아람 박은아 김정은 이진영 김진복 김재영 송경화 박은정 이지용 박성호 이태훈 신동철 정다운 유준호 정주영 전찬호 최준우 전태환 한신미 이경자 ■ 강서 박찬경 나해욱 이재현 변상호 임정민 오경자 ■ 강춘 오상윤 조항집 황승민 목준균 ■ 고양은평 고민희 장항희 고재욱 정희준 김요한 구병삼 백현소 맹윤덕 진희준 백승현 ■ 관악곡천 김미영 홍미례 문지호 박종순 박성목 이호섭 배지선 배관희 임연진 고혜선 차지연 박인숙 ■ 김포 권나영 박현자 장태인 임선양 ■ 노원 서윤정 김정필	오신애 이인하 임남수 이홍석 ■ 동대문중앙 김서현 강선혜 김정태 김성일 김태호 임근삼 문경림 이익수 안호숙 김옥숙 전희진 이영란 ■ 동작 김익경 이순애 송홍선 김재오 이성배 김승규 장기혁 최광천 하해용 광도이 ■ 마포 김경희 임영애 김민구 문성욱 김은영 조은숙 김태훈 최경석 김혜진 조성윤 서상욱 강을구 오영수 최은정 이현국 이종우 정태선 김경란 정태일 김동환 ■ 북누리 김기현 임명목 ■ 서대문 류미영 정미애 이인숙 김정애 김희선 김주형 ■ 성동광진 김관우 김대열 김도형 홍준표 맹예은 양선영 박종민 김명원 원은지 조선미 이영희 이경자 이병숙 한인숙 정은정 유서연	정인자 이인혜 최한음 장은주 하세호 박기일 ■ 성북 김기석 정재환 김소라 안경자 노혜은 유경아 백지혜 성미정 이정은 박복은 차해민 성종선 채은미 박미숙 최영자 최은주 ■ 신용산 강민우 황성훈 곽경열 박노민 김승현 한대수 김신영 전주옥 김영환 권은정 김유석 강길환 문의삼 임선녀 박재영 이용수 백현준 윤상진 안유진 백승목 이정재 김주현 조원석 윤상진 ■ 양천 박정화 김윤희 ■ 여의도 박문희 박소연 ■ 영등포구로 구자현 김소연 노금정 윤종욱 박진희 김순이 송영근 윤영준 신호진 이종미 천세은 문경숙 허지훈 오영배 ■ 용산 박재현 이명선 변지명 김미미 이병숙 한인숙 지상돈 장승훈	진호지 홍선경 최영지 이수정 최요한 박정훈 허 진 윤성일 ■ 양재 ■ 강남A 방옥희 김재남 배선혜 이서자 김미식 윤영숙 김정미 남희영 순주희 유수진 심상진 천종웅 한진수 윤희식 ■ 일산파주 안진희 박호정 임은정 이정수 ■ 중종로 권보민 최미란 ■ 천양사역 홍순재 이주호 ■ 한강 명원경 최문원 이하나 오정원 정은미 박지호 최세정 나지나 함수경 이명희 ■ 공동체업음 김범재 강성석 김은숙 홍미영 김효아 노금희 유철현 박익수 ■ S브릿지 고민지 서명순 구윤관 김인수 권지유 김양희 김성수 이창희 노원준 권우준 신희원 홍소파 이혜리 최은혜 이호준 박남식 조아라 송윤희 ■ 강남C 김보화 양승남	김지연 성유진 류순식 박성준 이종원 전경무 이지은 정 현 하은미 박미숙 하인영 이인자 ■ 강남D 김의중 강희찬 노가는 이지현 민윤경 우정현 백선옥 서원석 안현국 황호성 이승주 김애림 조우연 심효우 조은주 최성은 황유선 손은희 황윤준 이기성 ■ 강남E 김예선 안현주 김진아 황수현 김현선 김순명 김혜연 김미정 남준상 한상욱 김현영 신현영 문지연 이혜람 박동각 임해창 박미영 임희정 방홍복 박용원 배건우 김정호 변상호 이준구 오정민 고갈범 유선영 이은숙 유태식 박경성 이설희 정은희 이요한 김동철 이은진 장진아 이중숙 김중희 이창석 한지희 이혜정 김희원 전은정 석정영 최숙희 강정은 최홍석 이승의 한성식 임동연 황혜진 고은희 ■ 과천의왕 이정현 황성찬 이혜인 김정운 ■ 도곡 구기범 이진신 김은영 전선형 박노희 조경숙	박승용 장현식 박인애 서지연 이승명 이진신 이종호 김태문 조문주 임해정 조 웅 이강진 최은영 김은진 ■ 분당A 김경아 이경희 김성기 이기춘 성창우 소태수 이군자 유정순 ■ 분당B 박미정 박영순 이경아 윤은주 이윤신 김정희 ■ 서초A 김경숙 황현주 박유미 한경옥 오인숙 손금미 최영자 최은주 ■ 서초B 강은결 윤복희 김원규 조환준 김재성 박준영 김찬욱 임명준 오경석 한형기 이선복 김미화 이수경 조현영 이영준 김기섭 이윤경 김은경 이혜숙 이종아 전미영 이은자 정선경 김지경 최규용 이영실 ■ 서초C 김민지 김민민 박경숙 박명희 배정화 허인정 이연주 강소연 최연진 송은영 한창희 이진영 ■ 푸른누리	곽대준 김홍석 권재중 김광직 김준형 이병후 신동욱 송승환 용선주 성지은 이원식 이병후 이유리 박현정 이주혁 이재훈 ■ Bridge33+ 강성혜 박민경 권미연 김선미 김경희 강필선 김혜진 김은정 이영수 송영봉 이연숙 김정은 이은애 이승은 이은옥 송은영 이창원 강희선 정만우 여한구 천은주 이정현 하동진 유시철 ■ SNS 권선희 고은주 김건희 신선미 ■ J4U 류하영 박소정 이성철 장원규 임경환 주정훈 전재민 김희선 조민호 신동면 조준연 이상훈 최현우 차두희 ■ 캄보디아 박명주 김명희 장경애 김보라 최혜진 김유빈 서용호 김재은 이의형 김정광 안광호 김정환 정도연 김초아 장현희 류상욱 김재호 문예찬 윤석진 박세연 조경아 서예린 주진경 송나래 전승현	이병철 김상석 이주연 이명은 이지은 고지아 이지현 심경아 이태우 김남영 전유리 박연호 정수희 시인석 정재호 우동렬 차다희 최혜린 최동룡 홍기영 최예리 윤정애 최지민 강은택 최현경 이명대 ■ W 김희은 정명순 이은진 송기현 전세화 김미경
--	--	---	---	---	--	---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9월 17일(주일) 서빙고 3부 예배, 양재 2부 예배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분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대상자: 5월 11일~9월 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 감미향 목사반 김민정 김서현 김유리 김은지 김조은 김주연 박미정 윤영교 이진영 이현정 임소정 정수진 채송화 홍인화 ■ 요셉 강미음 이정희 안지현 장영실 ■ 하늘 강다은 박나영 장하은 안희정 조현민 박기정 진한솔 임현택 전국현 홍호식 ■ 전병천 목사반 김병훈 김수옥 김영화 김정현 나상복 ■ 강은철 장로반 김정은 김주영 박소현	박정진 방은성 변영화 신연수 심선우 안정현 이민준 이지연 이지혜 이창현 이해숙 정명선 정지은 최여임 최재선 홍현숙 ■ 정병천 목사반 김병훈 김수옥 김영화 김정현 나상복 ■ 정병천 목사반 김병훈 김수옥 김영화 김정현 나상복 ■ 정병천 목사반 김병훈 김수옥 김영화 김정현 나상복	민병희 민진홍 백정희 오준석 이득우 임두완 정재연 조기훈 조영선 최세영 최강규 최주은 ■ 정병천 목사반 고상진 김경희 김영민 남다린 박상철 박인화 박재익 엄영환 윤상원	이만기 이상근 이종선 정민혜 정충균 천보경 현민교 ■ 양재 ■ 박동현 장로반 조형욱 지용희 최수연 ■ 조대희 장로반 강연옥 구자춘 권오채 권정현 권지은 김성경	김소영 김태일 김효신 문성은 민춘기 박미선 박미숙 방선미 변정임 서영훈 서현지 송근례 이명숙 이 산 이윤경 이자옥 이지현 지미정 최경희 황진숙
---	---	---	--	--

장로칼럼

나의 성지순례가 완성되었다!



김영환 장로
(OCC공동체)

나는 조금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다. 마흔 살 가까이 돼서 만난 예수님이 참 좋았다. 예수님과 진한 사랑에 빠져 있다 보니 하루하루 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외우기로 결심하고 매일 메모지에 말씀을 써서 다니며 한 달 만에 통째로 외웠다. 그 기억 때문인지 빌립보는 나에게 특별한 곳이다.

어느 날, 빌립보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크리스천 CEO스쿨에서 그리스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신철우 장로님께서 우리 부부를 끼워 주셨다. 성지순례 당일 순례팀에 합류해서 아테네에 도착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초라하고, 도시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다소 실망했다. 그 실망도 잠시, 그리스의 찬란한 인류문화 유산과 성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가이드를 맡은 오 선생님과 아크로폴리스, 아레오바고 등지를 둘러보면서 그리스 신화가 그리스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 토론을 즐기던 당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 텔리 등 ‘에그나티아 오도스’ (Egnatia Odos, 세계 최초 국가 간 도로이자 바울이 걸었던 길의 이름)를 따라가며 순례가 이어졌다. 그리스는 무척 아름다운 나라였다. 잔잔하고 투명해서 물속이 훤히 보이는 에게해를 끼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드넓은 평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갑자기 험준하면서도 기이한 높은 산맥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겐그레아에서 오민 목사님의 기도와 어우러져 들려오던 에게해 파도소리가 바울 사

도를 생각나게 해 내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어느덧 성지순례가 끝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문득 불안이 들어왔다. 신앙생활하면서 <빌립보서>를 외우던 초심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내가 이대로 서울로 돌아가면 이 귀한 시간이 순례가 아닌 여행으로만 남을 것 같았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에 도착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싫었다. 마치 이별의 변명을 듣기 싫어 약속한 장소에 가지 못하는 소년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달래려 팀원들과 떨어져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다는 작은 시냇가를 홀로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조수운 형제가 세례를 받기로 했이라며 빨리 오라고 나를 불렀다. 조수운 형제는 우리 중에 가장 젊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순례를 따라온 형제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듯해서 가봤더니 조수운 형제가 이미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서 있었고, 오민 목사님과 팀원들이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신발과 양말을 벗고 시냇가에 뛰어 들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팀원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가슴이 조금씩 뛰었다.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다. 목사님의 세례 문답 이후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철우 장로님과 나는 조수운 형제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팀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순례객들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에 떨어진 것처럼 함께 중보기도하며 은혜의 세례식에 빠져 들었다. 2천 년 전 루디아가 경험한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성경에 머물렀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응하는 순간 나의 성지순례가 완성되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에그나티아 오도스, 사도 바울이 걸었다는 옛적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권사칼럼

생명은 동사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 식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자라는 것을 보면 미세하게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꽃이 있다면 생명이 없는 조화다. 동물도 곤충도 움직이지 않으면 박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움직이고 반드시 자란다.

살아있는 믿음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흥해가 갈라지고, 여러고 성이 무너진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농부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씨를 뿌리듯, 복음도 전할 때 기적이 되는 동사(動詞)가 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잠 10:11).

샘은 퍼 올리지 않으면 마르고 찾아든다. 우리의 입이 생명의 말을 자꾸 하지 않으면 어느새 말라버린다. 생명의 말을 해야 생명이 솟아나고, 생명의 길이 나서 생명 길을 걷게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히 4:12).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혈액과 골수를 관통하며, 마음과 영혼을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다. 성경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히

4:2)고 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접촉 불량으로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도 돌아서면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이다. 흘러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나는 공원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중얼거리며 읊조린다.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복을 거듭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많이 반복한 것은 마음에 새겨지고 몸에 체득된다.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할 게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면 가슴이 뻥다. 생명이 샘솟는 것 같다. 기도할 때 은사를 체험하면 생동감이 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정감이 없고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멈춘 것을 본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다. 멈출 수 없는 생명이다. 나이와 상관없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입에 두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내게 관통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도행전적 꿈을 꾸다.

신앙에세이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지난 9월 3일은 대전온누리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주일이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우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했다. 온누리교회 가족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담당목회자로 섬겨주셨던 모든 선배 목사님들과 현재 동역하는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스무 살 생일 잔치와 그 기쁨도 잠시,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자 무거운 책임감이 나를 짓눌러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무 살을 맞은 캠퍼스 교회는 변화와 성숙을 요구하기에 거

룩한 책임감이 뒤따랐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일 메시지를 묵상해보았다. 담임목사님은 이 세상의 여러 교회 유형을 ‘3M’으로 정리하셨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결국 세 가지 유형의 교회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Missionary Church(선교적 교회), 둘째, Maintenance Church(관리형 교회), 셋째, Museum Church(박물관 교회)가 바로 그것이란단다. 다가오는 20년, 대전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로 남을지는 성도들이 어떤 비전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셨다. 우선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Acts29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서구 유럽의 교회들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한때는 크게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도 개척 초기의 사명과 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전을 잃어버려 관리형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박물관처럼 기념비적 교회로 조롱받게 되었다고 하셨다. 문제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서구 교회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담임목사님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보냄 받은 자의 사명, 세례,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교회로서 예수님이 꾸무신 세상의 희망을 주는 교회라고 일갈하셨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하나님과 믿음의 모험을 함께하는 교회다. 다음세대를 중요시하고, 새가족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며, 세계선교의 꿈을 위해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지니게 된다.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메

시지가 더욱 감동적인 이유는 모든 성도가 Acts29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Kingdom Pioneer’로서 온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온누리교회 20년은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창립 목적과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날 것이다. 대전온누리교회가 믿음의 선교사 200명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대전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사역을 재정비하고, 기도와 열정으로 다음세대, 새가족, 세계선교를 중요시하는 영혼의 베이스캠프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대전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일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일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일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버킷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형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일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분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서빙고)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5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 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편집 디자인 채용 공고
업무: <생명의 삶> 표지, 내지 편집 디자인 1명
형태: 정규직, 주5일 근무
경력: 편집 디자인 1년 이상(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툴 능통자)
접수: www.duranno.com

찾아가는 입양세미나
일시: 9월 17일 오후 5시 30분
장소: 평택 온누리 교회
내용: 입양 부모의 행복한 입양 이야기, 입양 및 위탁 방법 절차 안내
주최: 사회선교부 제이홀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양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170기 지원자 모집
일시: 10월 14일~11월 11일(매주 토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회바: 12만 원
접수: 02-2182-9100, www.father.or.kr, 아이스쿨
문의: 박민상(010-2657-187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9: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일예배 9: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0: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1: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활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 J 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아부, 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아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릉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원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해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송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NI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8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욱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향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진재 김성욱 김성용 김성겸
김승환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환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흥주 노규석 노치형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배 박성은A
박성업 박성철 박천중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근구 변대섭
서경남 송성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성훈 신원철 시브차
안사부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환 최성규 최성민
최연진 최용준 최재용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허원희 황종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신미

●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성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 한해철 마주바를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썬애피비 사카르 윌리엄 에릭 마
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아이라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이진량
존케이미 차케이미 최정현 하효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규용 강하람 강현구 박시은
구길모 권대식 권예람 김가희
김기태 김디모데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의연 김종균 김정부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세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익력 방예진 방명지 박성주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안유택
양현모 염경덕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동준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시하라 노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정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현우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정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는 정상원 정성민
정은영 정영연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유일

●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익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환 권철준

김경선 김광동 김광철 김관근 김관식
김남열 김병중 김명철 김남식
김익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혁
김수웅 김승연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국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하 김장렬 김재욱
김종진 김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환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철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의 박봉래
박상숙 박석복 박성진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성태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연 백홍기 상병선 서성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정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원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환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정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재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무 정대서 정도영 정문규
정병국 정보원 정순봉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승일 주영민 차승철
차준구 차준진 천영민 최도성
최득민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주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영희 한종대 한형호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이해남 이한규 이흥선 이학일
임광순 임병수 임삼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성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서
장정철 장정열 정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관
정영기 정영택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최영태 최주관 최한우 최한재
최형수 최호필 하주현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경 한홍희
한필규 한일식 한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춘진 홍혜남 황병원 황상준
황성룡 황윤일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김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리프스 박자인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범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진희 김은혜 김경경
김정환 김지창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정현 오지훈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이석일 이영복 이영민 이은일
이영복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임광순 임병수 임삼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성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서
장정철 장정열 정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관
정영기 정영택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구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최영태 최주관 최한우 최한재
최형수 최호필 하주현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경 한홍희
한필규 한일식 한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춘진 홍혜남 황병원 황상준
황성룡 황윤일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김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범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진희 김은혜 김경경
김정환 김지창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정현 오지훈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 **반주자**
김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이학일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성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노은경 문예지 문화정 박신희
박이영 박오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민 신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유준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광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예리 이예나 이예은 이창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는 정진우 조민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해외 온누리교회**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박산송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택 이민욱 요시하라
마부 전현규 정호석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마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영 이종재 정정철

●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은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빈
박현욱 박호빈 배성우 변법민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유순하
유명중 유영순 이경호 이명범
이성은 이서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아사 장재훈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는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상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연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윤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우표 정성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타치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
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김하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종수 우승호 윤영오
이윤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석
●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오택 성한제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희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정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용환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용식 이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오셉 김중수 윤창근
윤환돈 인성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범
●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윤희
김좌경 김진용 김승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엄해숙
유기열 이명진 이영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호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9월 16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최재영, 최미정(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안수집사)의
아들 최종현(토론토하늘씨야교회)
윤돈영, 박은림(토론토밀알교회)의 딸
윤현정(토론토하늘씨야교회)

9월 16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을

이성근, 방미영(온누리교회 집사, 권사) 아들
이창윤(온누리교회)
김억진, 배상희(예산교회 권사)의 딸
김수련(예산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약속 성격 유형검사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넛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별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8/31(목) 분당A 양성철 집사 빙모상 고 태현균

8/31(목) 도곡 이상미 성도 모친상, 강남B 이상명 성도
모친상 고 한의섭

9/2(토) 관악금천 주수일 집사 부친상 고 주필선

9/3(주일) 광명 박선규 집사 부친상 고 박병웅

9/3(주일) 성북 박금진 집사 모친상 고 맹관영

9/3(주일) 송파B 이현숙 성도 모친상 고 이옥순

9/4(월) 서초C 최현숙 성도 시모상 고 김효정

9/4(월) 한강 한정식 집사 모친상 고 양태희

9/5(화) 이촌 김세환 성도 배우자상 고 박계순

9/5(화) 서빙고 고 조윤숙 명예권사

9/6(수) 한강 백광심 집사 시모상 고 조임순

9/6(수) 김포 조해영 권사 모친상 고 김자선

9/7(목) 성동광진 권인숙 권사 부친상 고 권희철

9/8(금) 양천 이봉의 장로, 이인의 집사 부친상,

박순숙 권사, 김현숙 집사 시부상 고 이장우

기특하데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한 후원

기념일을 특별하게 하는 후원데이



감사함으로 가득한 기념일,
선교 미디어 CGN 후원으로 더 특별하게 기념하세요.



생일

소중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결혼기념일

배우자와 함께 맞이하는
감사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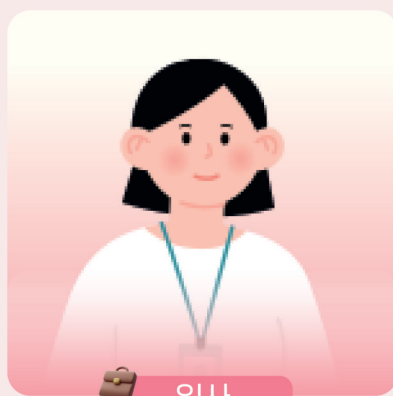
백일·첫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 자녀의 특별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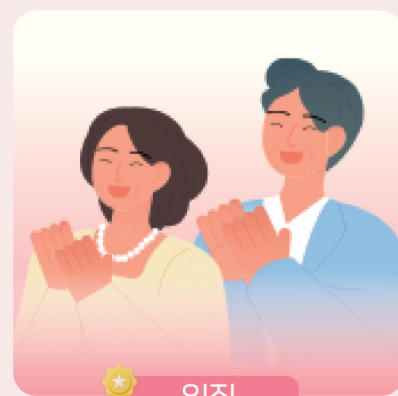
입학·졸업

학업을 시작하고 마치는
의미 깊은 날



입사

직장생활,
주님과 함께 첫 시작!



임직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날

👉 '기특하데이'의 자세한 후원 방법은 CGN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특하데이 후원자에게는 '기념일 후원 증서'📄와 '굿즈'🎁를 선물합니다.
(정기후원 3만원, 일시후원 10만원 이상)



후원바로가기